

Issue Comment

2017. 9. 21

기업은행 024110

KT&G 주식 매각 결정 철회

●
은행

Analyst **은경완**
02. 6098-6653
kw.eun@meritz.co.kr

KT&G 주식 매각 결정 철회

전일 기업은행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17년내 매각키로 했던 KT&G 주식 매각 결정을 철회. 현재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KT&G 주식의 주당 취득원가와 지분율은 각각 22,378원(현 주가 104,500원), 6.9%(9,510,485주)로 단순 매각 차익은 약 7,810억원 수준. 1) 위험가중치 확대(100% → 318%)에 따른 자본 비율 훼손 영향(약 16bp 하락) 미미, 2) 실적 개선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에 따른 BIS 비율 제고(매각을 결정했던 '15년 이사회 당시 12.39% → '17년 상반기 14.05%), 3) 유사시 자본비율 보전 재원으로 활용, 4) 상반기 초과 이익 달성을 매각 철회를 결정하게 된 배경.

'18년 금융권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예정

현행 회계기준(IAS 39)은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매각이익을 손익 계정으로 계상. 반면 '18년 1월에 도입될 새로운 회계기준(IFRS 9)은 지분상품 처분 관련 손익을 자본계정으로 편입. 실제 KT&G 주식의 경우도 매각 이익의 실현이 가능한 FVPL(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이 아닌 전액 내부 유보가 가능한 FVOCI(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포괄손익금융상품)로 선택 예정. 다만 관련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매년 350억원 이상의 배당수익 기대. (350억원의 배당수익 유입 가정시 BIS 비율 1bp 상승, 약 1,809억원의 중기대출 운용 재원 확보 가능)

특별배당 등의 기대감 소멸에도 업종내 높은 배당매력도는 지속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규모 일회성 이익에 기반한 특별배당 기대감 등이 소멸한 점은 아쉬운 부분. 그럼에도 정부 출자기관 연도별 목표 배당성향에 맞춘 점진적인 배당성향 상향 조정은 지속될 전망. '17년 예상 지배순이익 1.4조원(+20.9% YoY), 배당성향 29.0%(연결기준) 가정시 DPS와 배당수익률은 각각 620원, 4.2%로 추정.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9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시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9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9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은경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